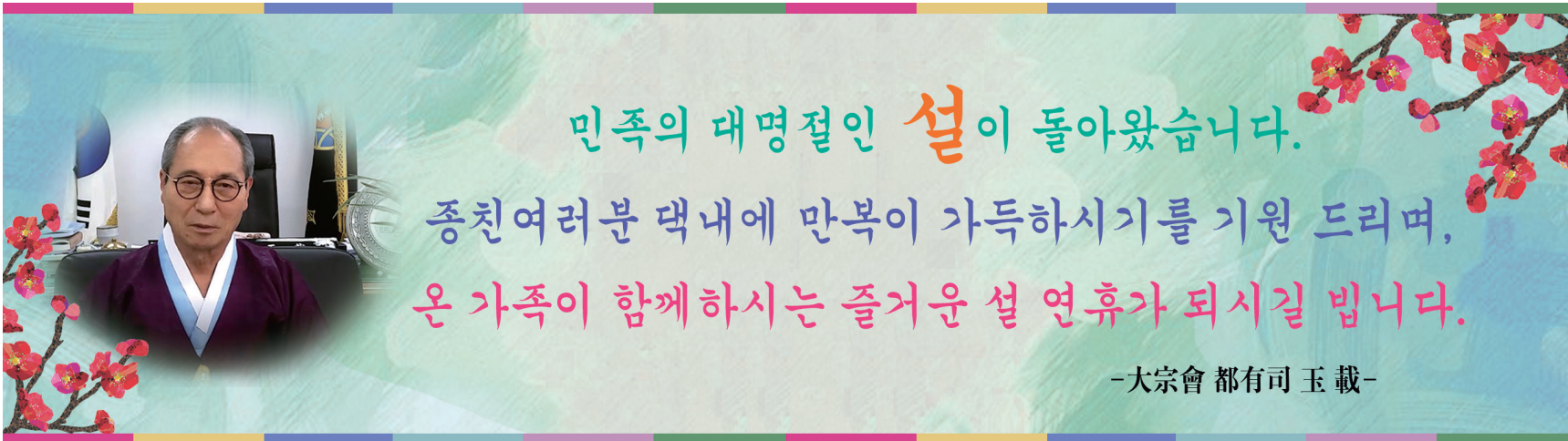


#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 悅親心 독서가이 열친심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遺子滿籩金 유자만빙금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주다해도
	勉爾孜孜 惜寸陰 면이자자 석촌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不如教一經 불여교일경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老矣無能 徒自悔 노의무능 도자회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此言雖淡薄 차언수담박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頭邊歲月 苦駸駸 두변세월 고클침침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	爲爾告丁寧 위이고정녕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 대중회 신년교례회 성황리 개최



대중회에서는 1월10일(수요일) 오후6시 남산 퍼시픽호텔 2층 '남산홀'에서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8년도 신년교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본 신년교례회에는 대중회 집행부를 비롯한 원로종인, 대중회 임원·대의원, 지파 도유사 및 집행부, 방계종회 도유사 등 여러분들이 초청되어 전국 경향각지에서 130여 명의 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호텔에서 신년교례회 행사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대중회 결재 총무유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에 이어 대중회 옥재 도유사와 상임집행부의 참석종인에 대한 신년인사와 참석종인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내빈으로는 종환(95세) 삼양화학 회장(대중회 전 도유사), 호은 복재

(95세)웅, 옥암 경재 전 국회의원, 우영·해재·재진 전 대중회도유사, 경재 전 방통위원장, 일랑 종상 화백, 수담 전 국회의원, 수구 전 한국보건 의료재단 총재, 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종구 국회의원, 종철 퍼시픽호텔 사장 등이 소개되었으며, 이

어서 각 지파도유사와 지역 종친회장 등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다음은 조상님께서 주시는 세배 돈 전달식이 이어져 종환 대중회 전 도유사, 호은 복재웅, 병준 광릉부원군파 전 도유사, 옥암 경재 전의원, 종섭 관찰사공 종회 전 도유사, 우영 전 도유사, 해재

전 도유사, 재진 전 도유사 등 8분에게 옥재 도유사께서 일일이 앉은자리를 찾아가 종인들의 박수 속에 전달하였다.

이어서 대중회 옥재 도유사는 인사말을 통해 “갑작스러운 추운날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지난 세일사에 참여하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종인 여러분께 거듭 감사함을 전한다음, 현양사업 등 앞으로 대중회의 운영방침과 중점사업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종인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끝으로 금년한해 만사형통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마쳤다.

다음 순서로 원로 종인들의 덕담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는데, 요약하면,

■ 종환 회장 : 무술년 신년 인사회에 우리 廣李가 이렇게 많이 모이실줄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몰랐는데, 대종회에서 성대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것을 축하드리고, 종인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 호은 복재옹 : 우리문중의 산 증인이신 종환 회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사회 발기당시 소회를 밝히신 후) 종인여러분 무술년 만사대통하시고 댁내에 만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 옥암 경재의원 : 종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대종회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신년교례회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종회 옥재 도유사를 비롯해서 상임유사들과 각 지파 도유사님들께서 힘을 합해 종회를 훌륭히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참석해주신 종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댁내에 만복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 우영 전 도유사 : 무술년 새해를 맞아 여기 모이신 우리 종친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던 뜻하신 일들이 술술 풀려서 소원성취하시길 바라고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경재 전 방통위원장 : 새해는 우리 廣李가 흥왕의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일랑 종상화백 : 금년에 받아보신 연하장과

초청장의 강아지 그림은 수복이와 강녕이, 부귀영화양이 여러분께 새해인사를 드린 그림입니다. 독도아침 해의 정기를 듬뿍 받으시고 수복·강녕 부귀영화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종구 의원 : 무술년 새해에 소중하신 종인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정치적으로 탄핵과 대선 등 굉장히 혼란스런 한해였고 사회적으로는 태극기다 촛불이다 해서 상당히 분열되어있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금년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합심하고 협치하는 한해가 되길 희망해 보며 저도 우리 廣李를 빛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 우리 廣李도 화평의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재진 전 도유사 : 오늘 보시다시피 대종회에서 보다 색다르고 한 단계 발전된 신년교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도유사 이하 집행부가 수고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월은 가면서 보다 발전하고 우리 종회도 한발 한발 더 나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종인 여러분들은 우리 廣李를 이끌어가는 주역이십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종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어서 원로 어르신들의 케익 커팅과 옥재 도유사의 새해 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건배제에 따라 모두가 화답하며 건배를 들은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맛있게 준비된 뷔페를 나누며 화합과 돈독의 시간을 가진 다음 이날 행사를 모두 마쳤다.



## 재경화수회 신년교례회 개최



재경화수회(회장 명환)는 1월15일(월요일) 오후6시 무술년 새해를 맞아 대종회 지하회의실에서 제383차 화수회 월례회의 및 2018년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종회 옥재 도유사를 비롯 재진 전 도유사, 원로 복재(95세)옹, 각 지파도유사 등 10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자리하였다.

충교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국민의례를 마치고 명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각계 간사들의 인사와 회원 상호간 새해인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참석 내빈소개와 회장 신년인사가 있었다. 회장인사에서 명환 화수회장은 “매월 모임을 갖지만 오늘은 유독 여러분들이 더욱 반갑다.”며,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모임이라고 말하고, 이 자리에 꼭 맞는 둔촌선조님의 시가 있다며, “빨간꽃, 하얀꽃, 노랑꽃 화분에 어울려 피니/ 울안이 향기로우세/ 초가집 안에 유난히 향기로우세/ 초가집 안에 누워 있으니

미인을 대하는 듯 완연하니/ 명아주 침상에 누워 있음도 잊어버렸네...” 라는 시 한 구절을 소개한 후, “각기 파가 다른 회원들이 한 모임에서 어울림은 꽃들이 어울려 좋은 향기를 발하는 것과 같이 더욱 아름답고 단합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화합 하면 금년 한해가 더 의미 있는 한해가 되리라고 본다.”며 아무쪼록 올 한해도 회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마쳤다.

다음순서로 원로님들 덕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먼저 대종회 옥재 도유사께서 금년도 대종회 사업계획 몇 가지를 설명하고, “전년에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금년에는 더욱더 힘을 실어주시어 대종회 집행부가 열심히 종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올 한해 종인여러분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마쳤으며, 이어서 대종회 재진 전 도유사께서 “제가 도유사직을 떠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유사를 맡은 기간 중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회원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해 드리고, 올 해는 집집마다 ‘서기집문’ 성스러운 기운이 여러분 댁내에 모여들어 오기 바란다.”고 인사를 마쳤으며, 마지막 순서로 호은 복재(95세)옹께서 우리 화수회가 설립된 지 30여년이 됐다고, 그동안 화수회가 오늘에 이



르게 된 내용을 설명하고, “무술년 새해에 우리 廣李 종인들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서 100세까지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마쳤다.

다음 순서로 좌의정공파 근환(22대) 종인이 신입회원으로 소개되어 많은 축하의 박수를 받았으며, 이어서 축하 떡 절단식과 회원들의 환호 속에 샴페인 축포를 터뜨리고 명환 회장의 재경화수회 화목과 발전을 위한 건배제에 화답하며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뷔페로 식사를 하며 화합과 돈독의 시간을 가졌다.



# 2018년도 대종회 및 지파총회 행사일정표

## ■ 2018년 세일사 일정표

선조님	세일사 일정		장 소	연락처
	음력	양력		
시조(회 당)	10월 2일	11월 9일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유동 120-1	02) 735-1720
시조비(인화이씨)	10월 4일	11월 11일	경기 하남시 덕평동 산24-1	
둔촌선조(회 집)	10월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3-11	
청백리공(회 지적)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 3-1	
사인공(회 장손)	10월 5일 (오후)	11월 12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3-11	010-8849-0155
대사간공(회 극규)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8	02) 2212-5227
관찰사공(회 예손)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3	02) 595-5656
광원군(회 극돈)	9월 9일	10월 17일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90-1	02) 733-4179
문경공(회 극감)	상강일	10월 23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산4-7	02) 2213-5316
좌의정공(회 극건)	10월 3일	11월 10일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산55-1	02) 2212-5767
총희공(회 인손)	10월 6일	11월 13일	경기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237-1	02) 472-8209
참판공(회 극기)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33	02) 2212-5767
광천부원군(회 극중)	10월 7일	11월 14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산37	02) 472-8209
목사공(회 자유)	10월 9일	11월 16일	경기 하남시 향동(고골) 산64	02) 485-5827
문숙공(회 지강)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67-2	010-2582-6928
광릉부원군(회 극배)	10월 12일	11월 19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산12-4	02) 3426-1096
심운과공(회 자경)	10월 11일	11월 18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97	010-3479-3400

## ■ 추모행사

행사명	행사내용 (장소)	연락처
정암(충훈선생) 추모식	삼일절 추모식 (동자동국립현충원)	010-3479-3400
칠곡애국동산(6위) 추모식	삼일절, 광복절 추모식 (칠곡 애국동산)	010-8330-0088

## ■ 불천위 및 추모제

선조님	일자		장 소	연락처
	음력	양력		
광릉부원군(극배)	6월 21일	8월 2일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89	02) 3426-1096
문경공(극감)	7월 27일	9월 2일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삼방연지길 47-6 (삼방리 64)	02) 733-4179
광양군(세좌)				
정효공(연경)				
충장공(광약)				
동고상공(준경)	7월 7일	8월 17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산35-1 (목왕로 308-41)	02) 733-4179
	한식제향	4월 6일		
광천부원군(극중)	3월 25일	5월 10일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209-3 (광천사)	02) 472-8209
광원군(극돈)	2월 28일	4월 13일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07-2	02) 595-5656
충민공(상안)	1월 21일	3월 8일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33-10 (3층)	010-3742-4080
장렬공(운덕)	4월 14일	5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14길 13 (5층)	010-8350-9777
좌의정공(극군)	상강일	10월 23일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산4-5 (송모재)	02) 2213-5316
한음상공(덕형)	추모제	10월 30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쌍송재)	
석담선생(운우)	8월 9일	9월 18일	경북 칠곡군 지천면 상지3길 17 (석담 종택)	02) 2212-5767
경무공(우형)	5월 20일	7월 3일	하남시 하남대로 784번 안길 6 (경무사)	
문익공(원정)	8월 21일	9월 30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동산2길 11 (귀암 종택)	
도현공(원복)	12월 21일	2월 6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3길 21-12 (박곡 종택)	
묵헌공(만운)	6월 25일	8월 16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3길 13-5 (묵헌 종택)	

※ 본 일정표는 대종회에서 발간 배포한 2018년도 달력에 누락 및 오기 된 사항을 바로잡고 불천위제 등 제례 모시는 장소를 추가 파악하여 재 수록하는 내용이오니 관련 행사 참여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사진으로 보는 '신년교례회' ]



↑ 입장하는 종인들



↑ 식사와 담소



↑ 원로 중환회장 새해인사와 덕담



↑ 케익커팅 장면



↑ 순국선열과 조상님에 대한 묵념



↑ 내빈을 맞이하는 옥재 도유사



↑ 참석인사 소개



↑ 건배 제의



↑ 식사시간



# 遁村先祖 이후의 역사(61)

이 면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譜學을 上代로부터 계속하여 연재하고 있습니다.

## 운암공(雲庵公) 휘 시로(諱 時老) 행장 - 舍人公 6代孫 -

의병장(義兵長)으로 호는 운암(雲庵)이고 사과공 여극(汝訥)의 손자이며 정준(廷俊)의 장자로 선조38(乙巳 1605)년 생이다.



운암공(휘 시로) 묘소

부용당 성선생(芙蓉堂 成先生)에게서 배우고 영남의 학유(學儒)로 손꼽히던 계서 성이성(溪西 成以性)과 수봉 이여익(秀峰 李汝翊), 어촌 양훤(漁村 楊暄), 안상한(安翔漢) 등과 도의교우(道義交友)로 사귀었다.

인조14(1636)년 병자호란 때에 의병을 일으키니 영백 심연(嶺伯 沈演)이 읍병(邑兵)을 내주어 부대를 편성하고 공이 선봉장이 되어 문경새재까지 달려갔으나 이미 화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은거하였다.

후에 조정에서 이 장한 창의(倡義)를 알고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제수했으나 받지 않고 운암에서 지내다가 효종2(1651)년 향년 47세로 별세하니 공의 충효를 기리고자 경남 창령 운곡서원(雲谷書院)에 배향(配享)하였다.

묘소는 창령군 대합면 개복리 선고묘하(大合面 介卜里 先考墓下)로 배위 벽진이씨(碧珍李氏)와 합장이며 2남2녀를 두니 장남 일신(一臣), 차남 필신(弼臣)이다.

## 증 좌찬성공(贈 左贊成公) 휘 사수(諱 士修) 행장 - 문경공(諱 克堪) 5代孫 -

명종8(癸丑 1553)년 서울 태생으로 송덕재(崇德齋) 공의 아들인 계열(繼悅)이 생부인데 동고상공의 아들 예열(禮悅) 배위 숙부인 덕수장씨(德水張氏)가 무사(無嗣)하여 공께서 탄생하시니 특이한 바탕을 타고 나 신지라 충정공 동고(忠正公 東皐)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슬하(膝下)에서 키우시다가 참의공 예열(

禮悅)의 뒤를 잇게 하였다.

선조15(壬午 1582)년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여 형조좌랑(刑曹佐郎) 황해도 안악군수(安岳郡守) 경북 의성현감 광흥창수 중추경역(義城縣監 廣興倉守 中樞經歷)을 역임하고 예빈시정(禮賓寺正)에 올랐다.

인조1(癸亥 1623)년 별세하니 향년 71세이다. 아들이 귀(貴)히 되어 좌찬성(左贊成)에 증직되고 묘소는 이천이었으나, 충주 황금곡(黃金谷 : 현 충북 증원군 노은면 수용리 못재) 유좌(西坐)로 이장하고 배위 증정경부인 풍산김씨(贈貞敬夫人 豊山金氏)와 합장이다. 또 배위는 경주이씨이다.

5男2女로 장남 필형(必亨 : 吏曹正郎), 차남 필영(必榮 : 右參贊), 삼남 필성(必成 : 강원도 歙谷현령) 4남 필행(必行 : 通禮院相體), 5남 필흥(必興)이다.

※ ① 송덕재(崇德齋)와 동고 양파(東皐 兩派)의 자손은 대부분이 공의 자손이며 내외 증·현손(内外 曾孫)이다.



증 좌찬성공(휘 사수) 묘소

曾·玄孫)이 130여명인데 이것은 적선(積善)의 경사가 아니면 어찌 이와 같겠는가? (墓碣陰記 必成撰)

② 사수(士修)께서는 1610년 경술보(庚戌譜) 편찬시 종형 되시는 사온(士溫)과 함께 편수(編修) 편찬(編纂)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 공조판서공(工曹判書公) 휘 경립(諱 景立) 행장 - 광원군(諱 克墩) 5代孫 -

선조15(壬午 1582)년 생으로 현령 여청(縣令 汝淸)의 아드님이다. 무과(武科)에 합격하여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올라 공조판서 오위도총부도총판(工曹判書 五衛都摠府都摠管)을 거쳐 광해 말에 훈련원대장(訓練院大將)에 이르렀다.

그때에 김유 이귀(金塗 李貴) 등이 의거(義擧)을 모의할 때, 경립의 많은 군사가 궐내에 있어 근심이 되었다. 이귀와 경립이 한마을에 살아서 잘 아는 터라 알려져서 결탁하려 했으나 경립이 박승종(朴承宗)과

사돈이기 때문에 발언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장유(張維)가 아우 장신(張紳)을 시켜 설득케 하였다. 장신(張紳)은 경립의 사위이다. 경립이 이귀(李貴)도 가담했느냐고 물어서, 장신(張紳)이 그렇다고 하니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허락했다.

반정(反正)의 날 의군(義軍)이 진군 하여 창덕궁(昌德宮) 문밖에 이르니 경립은 도감(都監)의 병졸을 이끌고 궐문 동구(洞口)에 진을 치고 맞아들여 의군(義軍)이 쏜살같이 인정전을 점령하고 인조가 돈화문(敦化門)안에 좌정(坐定)하여 경립을 맞으니 군(君) 앞에서 절하였다.

인조가 즉위하여 공을 일등공신(一等功臣)에 책록(策錄) 하고 광천군(廣川君)에 봉하였다.

## 예조참판공(禮曹參判公) 휘 여황(諱 如璜) 행장 - 좌의정공(諱 克均) 6代孫 -

자(字)는 계휘(季徽), 호(號)는 용탄(龍灘) 선조23년(1590)년에 출생하셨다.

선조39년(1606)년에 진사과에 급제하시고, 광해4년(1612)년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세자 시강원설서(世子 侍講院設書)를 시작으로, 홍문관의 정자. 교리. 응교를 역임하셨다.

광해4년(1619)년 부수찬·수찬·인조3년(1625)년 홍문관교리·수찬·교리. 우부승지를 거쳐, 석담 윤우(石潭 潤雨)와 같이 정사일등(靖社一等)의 훈공(勳功)으로 책록(策錄)되어,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고, 인조8년(1625)년 황해도관찰사를 거쳐 예조참판까지 지내셨다.

[광해4년(1612)년] 9월 한음공이 다시 영의정에 오르고, 여황이 과거에 급제하자(세 아들 중 처음), 지사공 [知事公: 민성(民聖)]의 병이 조금 차도가 있어 서울 집으로 모셔 와서 축하의 잔치를 베풀었다.

한음공이 복두(僕頭: 과거급제자가 홍패(紅牌)를 받을 때 쓰던 관(冠)를 쓰고 꽃을 꽂고 있는데, 대간 홍호(大諫 洪鑄)가 한음공을 바라보고는 큰 소리로 「영의정 신래(新來: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하고, 불러 지사공이 손뼉을 치며 웃었다.



예조참판(휘 여황) 묘소



한음공이 즉시 나와 홍공(洪公)을 맞으니, 홍공(洪公)이 앞으로 나와 사과하기를 「죄송(罪悚)합니다.」 하였다.

한음공이 이르기를 「노친(老親)을 위하여 신은관복(新恩冠服: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이 입는 관복(冠服))을 입었는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만약 홍군(洪君)이 아니었다더라면 노친을 영화롭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니, 한때의 승사(勝事: 장한 일)로 전해졌다.]

인조10년(1632년)에 선산 부사(善山 府使)로 계시면서 판결사(判決事)를 지내신 백씨(伯氏: 여규)의 상주 임소(尙州 任所)에서 서거하시었다.

정부인(貞夫人)께서는 단양 우씨(丹陽 禹氏)이시며, 장남은 상진(象震)이시고 아래로 딸 여섯을 두셨다.

### 증 형조참판공(贈 刑曹參判公) 휘 여선(諱 如璇)

- 작의정공(諱 克均) 6代孫 -

한음상공께서는 첫 부인 한산이씨가 28세로 순절(殉節)하신 후 여생을 함께하신 상주박씨(尙州朴氏)와의 사이에서 다시 네 분의 아드님을 두셨는데 막내이신 여선(如璇)께서 5남4여(5男4女)를 두셨다. 이 분들이 모두 동방무과(同榜武科)에 오르셨다.

- ◆ 오형제(五兄弟) 분 무과(武科) 등과
  - ◆ 상관(象觀) : 오위 부호군(五衛 副護軍) - 종四품
  - ◆ 상항(象恒) : “
  - ◆ 상태(象泰) : “
  - ◆ 상림(象臨) : “
  - ◆ 상수(象隋) : 평안도 위안군수(嘉善大夫 贈工曹參判) - 종二품
- ◆ 네 사위(四婿)분 무과(武科) 등과
  - ◆ 이시태(李時泰), 정석계(鄭錫啓), 윤두인(尹斗寅), 정이설(鄭爾高)

### 첨중추공(僉中樞公) 휘 춘우(諱 春雨) 행장

- 목사공(諱 之柔) 6代孫 -

순천군수(順天郡守)공 용호(用浩:克峻)의 현손(玄孫)이며 증공조판서 영식(榮植)의 장자로 증공 31(丙申 1536)년 생이다.

공은 선조26(계사 1593)년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세 아우(春蘭, 春郁, 春起)와 같이 어가를 용만까지 호종(扈從)하고 군량미 6,000석을 바쳐 충성을 다하니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되었다.

자손이 벼슬에 오르고 거금(巨金)부자가 5~6인이며 관서지방에 대족을 이루고 있다. 아들은 경백(景白), 중백(重白), 시회(時會)이다. 묘제는 평남 개천군 동십리(東十里) 판서공 안현(判書公 鞍峴) 묘소 뒤에 있다.

### 공조참판공(工曹參判公) 휘 춘란(諱 春蘭) 행장

- 목사공(諱 之柔) 6代孫 -

목사공 휘 지유의 6대손이며 영식(榮植)의 넷째 아들로 증공 39(甲辰 1544)년생이다.

공이 49세 때 임진왜란을 만나 선조가 정주(定州)로 파천(播遷)시 큰형 춘우공(春雨公)과 같이 쌀 300석을 모아 헌납하고 인근의 장정을 모아 왕을 호종(扈從)하였다.

후에 명나라 원군 5만이 도착하니 또 다시 큰형 춘우공과 같이 대소잡미(大小雜米) 6,000석을 모아 바치니 선조는 크게 기뻐하고 공을 높이 찬양하며 공의 형제에게 금의(錦衣) 한 벌씩을 하사하

였고 선무원종공신일등(宣武原從功臣一等)에 훈봉 하였으며 옥패가 내려지고, 현직 공조참판(工曹參判)에 특별 제수(除授)하였다. 아울러 3대까지 증직을 내리도록 특혜를 받게 되었다.(선조실록 26권)

인조원(癸亥 1623)년에 별세하니 향년 80이고 묘소는 개천군 광덕 음동 유좌(价川郡 光德 音洞 酉坐)에 정부인 서흥김씨(貞夫人 瑞興金氏)와 합장이다.

### 훈련판관공(訓練判官公) 휘 춘기(諱 春起) 행장

- 목사공(諱 之柔) 6代孫 -

목사공(諱 之柔)의 6대손이며 영식(榮植)의 일곱째 아들로 명종14(己未 1559)년생이다.

공은 두 형(春雨, 春蘭)과 같이 임진왜란에 종군하여 선무공이등훈(宣武功二等勳)에 올랐다. 무과(武科)에 올라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 및 훈련판관(訓練判官)에 제수되었으며, 3대까지 추종의 특례가 내려졌다.

묘소는 개천군 동십리 안현 오좌(鞍峴 午坐)에 있으며, 배위는 숙부인(淑夫人) 해주오씨(海州吳氏)로 아드님은 덕봉(德鳳), 덕구(德龜)이다.



## 알기 쉬운 보학 [7]

### ■ 조선시대 관직(III)

#### 5. 출사(出仕)와 낙사(落仕)

• 출사(出仕)란 글자 그대로 벼슬에 나간다는 말로써, 벼슬길에 올랐다는 뜻도 되며, 또 관원이 관청에서 등청(登廳)하는 것도 출사라고 한다.

• 낙사(落仕)란 관직에서 파면당하는 것으로써, 벼슬에서 떨어진 것을 말한다.

#### 6. 삭직(削職)과 추탈(追奪)

• 삭직(削職)이란 죄(罪)를 지은 관원에게 벼슬을 빼앗고 사판(仕版=官員錄)에서 이름을 삭제해 버리는 것인데, 이를 삭출(削黜), 또는 삭탈관직(削奪官職)이라고도 한다.

• 추탈(追奪)이란 이미 죽은 사람의 관직과 품계를 소급(遡及)해서 박탈(剝奪)하는 것인데, 이는 대개 정치적 인 혐의나 보복에 기인한 것으로 후일에 가서 신원(伸冤=怨恨이 풀림)되어 복관되는 수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추탈후신(追奪後伸)이라 일컫는다.

## 바르게 고칩니다.

〈제 331호〉

- 4면 좌측 상단 8째줄 : 父는 → 父는
  - 중단 첫째줄 : 水軍節度使 → 水軍節度使
- 4면 중앙 첫째, 넷째줄, 5면 우측 중단 상 5째줄 : 太 → 六
- 4면 중앙 상 10줄 : 우노전 → 우로전
  - 상 22줄 : 효도(孝道) → 효도(孝道)
  - 상 25줄 : 흥사(私嗣) → 흥사(弘嗣)
  - 하 11줄 : 동래정씨(東萊鄭氏) → (東萊鄭氏)
- 우측 상 16줄 : 부( ) → 부(耐)
- 5면 우측 상 둘째줄 : 하사나 → 하나
- 6면 좌측 상 9줄 : 후사(후嗣) → 후사(後嗣)
  - 우측 상 22줄 : 생원(生員) → 생원(生員)
  - 하 8줄 : 김성좌(金聖佐) → 김성좌(金聖佐)
- 9면 좌측 상 6줄 : 친잠제(親蠶祭) → 친잠례(親蠶禮)



지파도유사글

좌통례공파

# 고향(故鄉)



고향(故鄉)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다. '고향'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러한 의미를 관통하는 주된 정조는 아마도 그리움일 것이다. 가을날 창밖으로 비가 내리거나 늦은 밤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할 때 고향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비단 한국 사람만은 아닐 것이다. 고향이란 아련한 그리움이며 추억속의 영원한 향수(鄉愁)같은 것이다. 고향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정함과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라는 정감을 강하게 주는 말이면서도 정작 '이것이 고향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다.

고향은 나의 과거가 있는 곳이며, 정이 든 곳이며, 일정한 형태로 내게 형성된 하나의 세계이다. 고향은 공간이며 시간이며 마음[人間]이라는 세 요소가 불가분의 관계로 굳어진 복합된 심성이다. 공간, 시간, 마음 중에서 비중이나 우열을 논할 수는 없다. 살았던 장소와 오래 살았다는 긴 시간과 잊혀 지지 않는 정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고향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느 마을, 어떤 지점을 제시할 수도 있고,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 살았다는 시간을 제시할 수 있으면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각인각색으로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움> <잊을 수 없음> 타향에서 곧장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라는 면은 공통일 것이다. 사람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 한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생물학적인 탄생이며, 고향이라는 장소에서 태어난 것은 지리학적인 탄생이다. 그런데 내가 태어

난 시간이 동일하기에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고향은 하나가 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제 곧 구정 명절 설날을 맞게 된다. 그립고 보고 싶은 부모형제를 찾아 고향 길에 나선다. 전국 고속도로는 차량행렬로 어김없이 곳곳에 정체를 이룬다. 고향을 찾는 설렘과 그리움이 고됨과 지루함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고향은 설렘과 아련한 그리움이 있고 잔잔한 향수가 있기 때문이다.

고향(故鄉)은 그런 곳이다. 고향을 한껏 마음에 담아본다! 고향(故鄉)은 아련한 그리움, 영원한 노스탈지아! ~ 고향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해지고 너그러워지며 때로 뻔뻔해지기도 한다. 죽기 전에 고향에 가기를 소망하거나 죽은 후에 묻히고 싶어 하는 마음은 그곳에 나의 원형이 있기 때문일 게다. 물론 그 원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직 시간과 장소가 교합해 만들어낸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고향이 아름다운 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내 순수의 시대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찬란히 빛나고 있어서이다.

컨트리 가수 존 덴버가 부른 <Take Me Home Country Roads>나, 톰 존스의 <Green Green Grass Of Home> 그리고 나훈아의 <고향역>이나 한영애가 부른 <완행열차>는 노랫말만 다르지 고향의 그리움이 절절하기는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고향에 관한 노래는 셀 수 없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역사의 특수성 때문에 고향에 관한 노래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다. 우리나라 고향의 노래는 고유의 정서인 '한'과 '정'에서 비롯되었기에 대부분 그 곡조가 애잔하고 서정적이다.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동요 <고향의 봄>은 우리가 슬하게 불렀던 노래다. 그런데 촌

스러운 구닥다리 노래로만 생각했던 그 노래가 이제와 가만히 생각해보니 범상치 않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가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아~ 이걸 그냥 고향이 아니라 <도화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이 아닌가? 아하, 그랬구나! ~

우리에게 고향은 그저 나서 자란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고향은 낭만적 유토피아이기도 하고, 사상의 거처이기도 하면서 우리 인생이 몇 바퀴 돌고 돈 후가 돌아야 할 종착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소월이 "집승은 몰라도 사람은 아는 것이 고향"이라고 했던가, 아마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고향이란 단어는 너무 토속적일지 모른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아예 고향이 없다고도 한다.

하지만 고향이 뭐 별건가? 내 마음에 들어와 머물고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게 바로 고향이 아닌가, 정들면 고향이지 고향이 따로 있겠는가, 정을 준 곳이면 어디든 고향이 될 수 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서 고향이 있어야 한다. 고향은 딱딱한 삶에 드리우는 한줄기 바람이고 한 움큼의 햇살이다. 그래서 고향은 우리를 천사로 만들기도 한다.

고향은 무엇보다 '내'가 처음 꿈을 꾸는 장소이자, 그 꿈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곳이다. 그래서 고향은 종종 꿈으로 비유되곤 한다. 꿈을 통해 우리는 장소 불문 어디로든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경쾌하게 시간의 스텝을 밟는다.

고로, 세상 풍파에 찌든 '나'만의 꿈을 다시 살리려면, 하늘을 날면서, 자유롭게, 천사처럼, ... 고향을 보라! 아련한 그리움, 영원한 노스탈지아! ... 고향(故鄉)이여!

- 좌통례공파 도유사 득래 -

## 충희공(諱 仁孫)家와 채단(綵段) 4필 이야기



세조2년 1456년 당시 충희공(諱 仁孫)께서는 61세로 호조판서이시고, 長子인 광릉부원군(諱 克培)께서는 병조정랑(兵曹正郎 : 정五품 관원)으로 계실 때의 실록이다.

\* 세조2(병자1456)년 7월

22일 기축 4번째 기사.

“왜선의 압물인 안길(安吉)이 감호관 이극배에게 주려고 한 뇌물을 되돌려 주다”

「처음에 왜선(倭船)의 압물(押物)<sup>1)</sup>인 안길(安吉)이 통사(通事 : 통역관) 고점(高靄)에게 채단(綵段) 4필을 주어 감호관(監護官)<sup>2)</sup> 이극배(李克培)에게 보냈는데, 이극배가 받지 않았으므로 고점이 몰래 그 집에 갔다주었으나, 그 집 사람들도 거절하자, 고점은 그것을 그대로 두고 가버렸다. 그때에 이극배는 선위사(宣慰使)<sup>3)</sup>가 되어 이미 길을 떠났으므로, 그 아

비 호조판서 이인손(李仁孫)이 사유를 갖추어 예조(禮曹)에 고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고점을 국문하여 자복을 받았으나, 이제 그 물건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저들이 반드시 '본조의 관인(官人)이 남의 중한 뇌물을 거침없이 받아먹는다.'고 하여, 예의(禮義)의 나라가 도리어 경멸당하게 될 것이니, 마땅히 경상도 관찰사에게 회부하여 안길에게 돌려주며 말하기를, '감호관(監護官)이 그대가 보내준 것을 받지 않자 고점이 몰래 그 집 사람에게 준 것을 집에서 고발하였기 때문에 조정에서 고점의 죄를 다스리고, 또 그대까지도 문책하려고 하다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논죄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고, 이같이 개유(開諭 : 사리를 알아듣도록 잘 타이름)하는 것이 사체에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렇듯, 광릉부원군께서는 증조 되시는 둔촌(諱 集)으로부터 조부이신 청백리공(諱 之直) 그리고 아

비님 충희공(諱 仁孫)으로 이어지는 청렴 강직한 성정을 그대로 대물림 받으신 분이시다.

비록 채단 4필에 얽힌 이야기지만, 이 기록을 통해 충희공家의 청렴 강직한 가풍과 당시 조선시대 관료들의 관행이 어떠했는가를 예상할 수 있으며, 조정에서는 이러한 모범적 사실을 실록에 남겨 후세에 까지 사표로 삼도록 하고자 함이 아니었겠는가.

- 광릉부원군과 종회 총무 문수記 -

1) 압물(押物) : 사신(使臣)이 외국으로 갈 때 수행하던 관원, 조공(朝貢)하는 물건과 교역(交易)하는 물건 등을 관리하던 책임자임  
 2) 감호관(監護官) : 여진이나 일본의 사신을 맞이할 때에 이들에 대한 접대를 감독하던 벼슬아치  
 3) 선위사(宣慰使) : 외국의 사신이 입국했을 때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파견한 임시 관직. 일본국 및 유구국 사신에 대해서는 선위사만 보내 맞이하고 전송했다



# 지파 중회 소식

## 광릉부원군파 중회

### ■ 2018년도 무술년(戊戌年) 신년하례회 개최

광릉부원군파 중회(도유사 종선)에서는 1월12일(금) 명일동 중회사무실에서 신년 하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신년하례식은 종선 도유사를 비롯한 집행부, 자문위원, 임원 그리고 종길 화수 회장 및 부회장단, 중회초청 종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술년 새해인사와 더불어 덕담을 나누고 중회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특히 공사 다망함에도 불구하고 대중회 석연 상임부도사와 석재 문화유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 ■ “화수회” 신년 하례식 가져

광릉부원군파 중회 화수회(회장 종길)에서는 1월22일(월) 화수회 하례회를 개최하였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무술년 안녕을 기원하는 덕담 시간을 가졌다. 종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회원들께서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무술년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가 있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종선 도유사, 병준 자문위원, 범수 부도유사, 봉수 부회장, 그리고 범래 회원 순으로 축하와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자리를 인근 황금오리 식당으로 옮겨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돈독의 시간을 가졌다.



### ■ 광릉부원군파 내 소중회 신임 집행부 구성

광릉부원군파 內 대사헌(諱 世彌)공계 무갑리중회, 참의공(諱 世柱)계 중회, 해주목사공(諱 萬亨)중회는 지난해 12월 대의원 정기총회 등을 통하여 전 집행부의 임기 만료로 인한 신임집행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 중무를 시작하였다. 신 집행부의 선임을 축하하며 각 중회의 무궁한 발전과 승조·화합·돈독의 종사운영을 기대해 본다.

중회명	신임집행부			
	회장	총무	감사	
도승지공계	장악원중회	준수(俊洙)	(미선임)	중휘(鍾輝), 정수(正洙), 주선(柱善)
대사헌공계	무갑리중회	동수(東洙)	주혁(柱赫)	(유 임)
참의공계	참의공중회	용원(容元)	강재(江載)	(미선임)
	해주목사공중회	항재(恒載)	용복(容福)	시재(時載), 현재(絃載)

- 광릉부원군파 중회 총무 문수記 -

## 광천부원군파 중회

### ■ 광천부원군파 중회 신년 하례식 개최

광천부원군파 중회(도유사 성호)는 2018년도 신년인사를 1월 9일(화) 천호동 광천빌딩(옛날 농장)에서 가졌다. 지난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2018년(戊戌年)을 맞아 고문 및 지역 중회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종인들이 참석하여 2018년 첫 행사를 활기차게 시작하였다.

도유사님은 인사말에서 “연일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올 한해도 우리 중회는 더욱 발전하고 진취적인 한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한해동안 베풀어주신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금년도 종사업무 추진 방침으로,

첫째 ; 선조님들의 숭덕을 받들고 숭조사상에 소홀함 없이 현실에 맞는 중회 운영.

둘째 ; 계획과 관리의 철저로 예산절약과 실적향상.

셋째 ;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의 중회

분위기 조성.

넷째 ; 중회 사업의 공공사업과 연계 중재 절약 실현. 임을 밝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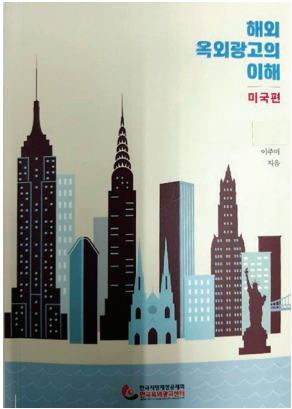
폭넓은 교류를 통해 광천부원군 중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중회가 진실보 되는 한해를 만들어 보자고 당부 하였다.

이어서 후재, 두재 두분 고문께서 훈훈한 새해 덕담을 해 주어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었으며, 각 지역의 중회장은 지역현안에 대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지난해 현양사업비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였으며, 이후 오찬의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종성 부도유사의 건배 제의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를 격려하며 덕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 주미 현종 “해외 옥외광고의 이해” 연구서적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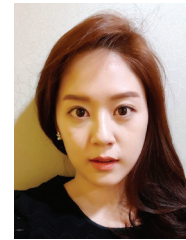
본문(광천부원군 파)의 이주미(24대) 현종이 “해외 옥외광고의 이해(미국편)”라는 전문연구서적을 저술 발표하였다. 본 연구서적은 미국의 산업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미국의 옥외광고”

를 체계화 하여 정리한 연구로서 옥외광고의 이론에서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정리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해외 광고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는 연구로서, 최근 옥외 광고업계는 산업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바, 옥외광고 환경에 대한 정보의 체계화를 정립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은 물론 기업의 산업전략 구축에도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주미현종은 2016년도에는 “도로변 디지털 빌보드 매체의 국내 도입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국내 및 미국 “시카고 MMA 컨퍼런스” 학술지에 발표한바 있다.

[세계(世系)]

광천부원군(극증 4代) → 세홍 → 복신 → 선경 → 수강 → 여 → 자승 → 동백 → 임 → 계발 → 태승 → 장기 → 진빈 → 명희 → 병석 → 춘래 → 용선 → 만재 → 종문 → 윤수 → 주미 (24代)



[약력]

1990년 1월 3일생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출생)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석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임 연구원

- 광천부원군파 총무유사 종두 -

### 광원군파 증회

### 광주·전남 증친회 2018년 첫 임원회 개최

“정기총회 2월24일 개최기로 합의, 차기 회장 珉載씨, 상임부 회장 錦采씨 선출”

광주·전남증친회(회장 容鑄)는 지난1월17일 오전10시 증친회 사무실에서 2018년도 첫 임원회를 개최했다.

秉淳 전회장등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容鑄회장은 황금의 해인 戊戌年 새해를 맞아 모든 임원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한뒤 오늘 회의는 오는 2월 정기총회를 앞둔 중요모임으로서 새 임원 선출 등 증친회 당면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2시간 동안 계속된 회의 끝에 2018년도 정기총회는 오는 2월24일(土) 오전10시 수자다음식점 2층 회의실(광주시 동구 운림동 소

재)에서 개최기로 결의하고 2017년도 결산안 심의에 이어 차기증친회장에 현 상임부회장인 珉載씨(69,참판공파)를, 상임부회장에 錦采씨(68,광원군파) 그리고 감사에 容武씨와 容珠씨를 각각 선출했다. 기타 임원진 구성 문제는 신임회장에게 일임기로 합의했다.

매년 연례적으로 시상하는 효부와 효녀 추천은 1월말까지 신청 마감기로 했다.

이밖에 증친회운영 당면 문제에 있어 容鑄회장은 증친회 사무실 옆 603호 사무실이 1년 이상 임대가 안 된채 비어있어 증친회 운영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원진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사정을 대증회에 건의, 지원받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끝난 후 容鑄회장은 새해 선물로 치약·화장품 등 10여 가지가 들어있는 생활용품 한 상자씩 나눠주면서 건승을 당부했다.



- 광주전남 증친회 부회장 이광래 記 -

### 보광회 신년하례회 및 단배식 가져

12일 금요일 오후6시 서초동법원 앞 서림원에서 40명의회원이 참석하여 무술년 보광회



신년하례회 및 단배식을 가졌다.

보광회는 보성출신 광주이씨를 회원으로 한다고 하여 보광회라 칭하게 됐다.

또한 보광회는 반세기전에 우경 이정래 제 현국회의원(4선), 태래 용훈 대법원장 부친, 오봉 중재(6선)의원들께서 결성하여 용식 대검검사장, 경재 국회의원(2선), 용신 증권거래소 소장, 중재 한전사장 등 회원과 가족 분들이 현재도 법조계, 의사, 고급공무원, 회사 임원 등 많은 광주이씨 인재배출의 산실이며 현재 대증회 옥재 도유사를 포함하여 정래, 중재, 용식 도유사 등 4명을 배출한 모임이기도하다.

현재는 30여 명의 회원과 여성 보광회 20여 명이 매월12일 월례회의를 갖고 있으며, 회장에는 법원사무관출신 핵재(법무사), 총무는 윤재 영문학박사 칼럼니스트, 두 분이 임원이고 현역국회의원으로는 강남 갑에서 종구 의원이 활약하고 있다.

모든 회원들이 백대지친의 정으로 뭉쳐 개인과 종회발전 및 본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품격과 본문의 명예를 지키고 발전을 위해 열심이다.

무술년 한해도 본 문중과 보광회의 발전과 평안을 위해 축원합니다.

- 무술년 정초 보광회원 용균 씀 -



“느낌을 주는 글”

공부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

■ 공부하라, 아이가 어미를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라.  
닭이 알을 품고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이,  
굶주린 자 밥을 찾고 목마른 자 물을 찾듯이,  
어린 아이가 어미를 찾듯이.

切心做工夫, 如雞抱卵, 如猫捕鼠, 如飢思食, 如渴思水, 如兒憶母.  
절심주공부, 여계포란, 여묘포서, 여기사식, 여갈사수, 여아억모.

- 휴정(休靜, 1520~1604)의 『선가귀감(禪家龜鑑)』에서 -

[해설]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라. 고3 교실에 붙어 있을 법한 글귀다. 열심히 공부하여 더 좋은 대학에 가라, 더 좋은 직장에 가라, 더 높은 지위에 오르라, 더 많은 돈을 벌어라, 우리 사회에서 보통 공부는 그런 것이다.

휴정도 그런 뜻으로 간절히 공부하라고 한 것일까.

서산대사(西山大師) 청허당(淸虛堂) 휴정은 임진왜란 때 침략한 왜적을 무찌르는 데 앞장선 승려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사명 유정(四溟惟政), 소요 태능(逍遙太能), 편양 언기(鞭羊彦機) 등의 수많은 문도를 양성하고 『선가귀감』 『삼가귀감(三家龜鑑)』 『선교석(禪教釋)』 『심법요초(心法要抄)』 『운수단(雲水壇)』 『청허당집(淸虛堂集)』 등의 여러 책을 저술하여 조선 후기 불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하다. 『선가귀감』은 그의 저술 중의 하나로, 여러 불교 전적에서 귀감

이 될 만한 글을 뽑아 해설을 붙인 책이다. 일찍이 언해(諺解)되었고, 조선 후기에 다수 간행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도 전래되어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휴정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고 한 공부는 다름 아닌 수행이었다. ‘공부(工夫)’는 불가와 유가에서 모두 쓰였던 말이므로, 수행이라고 풀이해도 좋고, 수양이라고 풀이해도 좋다. 분명한 것은 그 공부가 자신의 삶과 유리된, 수단으로써의 공부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출세의 수단으로써의 공부가 아니라 삶의 문제에 대한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그리하여 자신과 타인을 더 좋은 삶으로 이끄는 공부를 지향했다고 할까. 이제야 위 글귀가 조금 이해된다. 삶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성찰하라, 노력하고 노력하라,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이 휴정이 간절히 공부하라고 한 말의 속뜻이 아닌가 한다.

저명한 과학사학자인 나오미 오레스케스와 에릭 M. 콘웨이는 『다가올 역사, 서양문명의 몰락』에서 현대 문명이 몰락한 300년 후의 암울한 미래상을 그렸는데, 인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사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들의 지식이 무척 방대했다는 점, 그런데도 지식에 따라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아는 것이 힘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말이다. 이는 지식이 수단이 되는 세상, 공부가 수단이 되는 세상에 대한 경고와 다름없다. 지식이, 공부가 삶과 괴리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섬뜩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그 공부 말이다.

혹여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이라도 선현들이 하라고 했던 그 ‘공부’를 한번 돌아보아도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 손성필(孫成必)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

■ 공부의 이유, 공부의 목적

“아빠, 공부는 왜 하는 거야?” 어느 일요일,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이 정색을 하고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무심하게 앉아 신문을 보던 아빠는 동작을 멈추고 딸을 보았습니다. “그건 왜 물어?” “내가 왜 이려고 사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야.” 딸은 중학시절과 달리 학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의 미래를 위해 엄마 아빠도 매일 공부하라는 말을 하는 거고.” 딸은 잠시도 사이를 주지 않고 아빠의 말을 되받아쳤습니다. “난 공부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공부를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딸과 아빠의 치열한 공부 공방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딸의 회의에 대해 아빠는 명쾌하게 공부의 목적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것을 이유로 딸은 공부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아빠가 언제라도 공부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수긍할 수 있으면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딸은 단서조

항까지 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는 공부의 목적을 찾아 인터넷을 검색하고 주변사람에게 자문하며 전전공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다, 미래를 위해서 한다, 행복을 위해서 한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다,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한다. 등등.

딸이 수긍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한 아빠는 답답한 마음에 혼자 단골술집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 직원들과 가끔 들러 막걸리를 마시는 뒷골목 빈대떡 집이었습니다. 빈대떡을 부치던 주인아주머니가 왜 혼자 왔냐며 반가운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아빠는 주인아주머니에게 딸의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아주머니가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엄살을 댄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러고는 철판을 보지도 않고 능수능란하게 빈대떡을 뒤집으며 “공부는 남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 공부하면 사람이 옹졸하고 치졸해지거든. 세상을 크게 어지럽히는

놈들은 다 공부를 많이 한 놈들이야. 그런데 그 인간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만 공부했기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야. 남에게 주는 공부를 못한 거지.”

한때 ‘공부해서 남 주냐’라는 말이 유행한 적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공부의 목적을 이기적인 측면에 맞추는 나라도 없으니 그런 말이 유행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빈대떡집 주인아주머니의 논리는 그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 막힌 문제의 출구를 시원하게 열어 주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남 주기 위한 공부, 요컨대 모든 분야의 공부는 전문성을 얻기 위한 과정이고 그것을 성취한 뒤에는 전문성을 세상 사람과 나눠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힘겹게 발견한 공부의 목적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하며 아빠는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공부하라는 말 대신 “네가 추구하고 싶은 분야의 전문성을 얻어서 세상 사람과 멋지게 나누며 살라”는 말이 입 안을 땀똥고 있었습니다.

[ 작가 박상우 ]



# 용엽(容燁) 현종 “임진왜란 웅치전투의 전적지” 책 펴내



전북지역 서예가이며 진안의 향토문화연구가로 현재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위원장인 본문 20代 孫(광릉부원군파) 德巖 용엽(容燁) 현종이 최근 임진왜란당시 일본의 3대 패전지역 중 한곳(웅치전투에서 일본의 名將이 敗死)으로 알려진 웅치전투(熊峙戰鬪)에 대해 상세히 조사 정리하여 “임진왜란 웅치전투의 전적지”라는 연구서적을 펴냈다.

웅치전투는 선조25(임진 1592)년 7월8일을 전후하여 벌어졌던 전투로, 해전에서 이순신장군에 의해 재해권을 상실한 왜적은 군량확보를 위한 호남지역 장악을 목적으로 다방면의 공세를 펼쳤다. 본 전투는 당시 전라도 진안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고개 웅치(熊峙)에서 전주 부성을 공격하고자 하는 왜군 1만여 명을 상대로, 호남 지역의 관군과 의병 1천여 명이 사투를 전개하여

죽음으로 호남을 지킨 전투로서 왜적의 호남 장악이 저지된 결정적 계기가 된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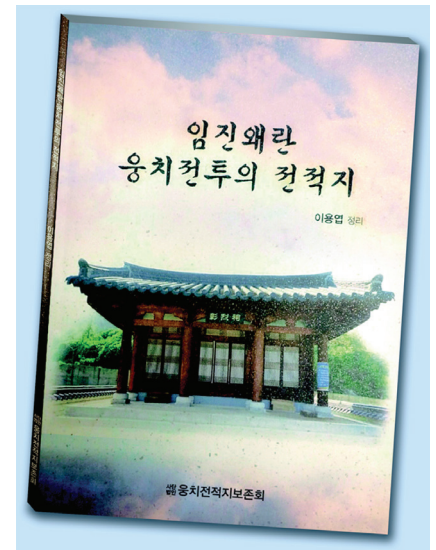
저자는 당시의 실록과 지역에 남아있는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웅치에서 전사한 관군과 의병 등을 조사하고 웅치와 관련되어 살아남은 선비들이 기록한 자료들을 찾아 당시의 전투상황과 순절한 주요 관군 및 의병들의 행적을 소상히 기록정리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록하여 웅치전투의 의미를 재조명 하였다.

용엽 현종은 전북지역의 향토문화 조사연구에 남다른 능력과 활동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전국향토문화공모전에서 “진안군 와룡암 연구”로 대상을 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바 있다.

### [주요양력]

-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위원장
- 진안향토문화예술연구회 회장
- 국립중앙박물관 작품심의위원 역임
- 한국서도협회 부회장 및 전북지회장 역임

- 한국서도대전 심사, 운영위원 역임
-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운영, 심사위원 역임
- 저서 :
  - 『전북미술대전30년사』, 『전북미술약사』
  - 『우리인삼의 발자취』 외 다수
- 진안향토문화 藝術志 『진안고을』 발행인



## 혹한기 안전 운전을 위한 자동차 일반상식

### 1) 눈길 주행 뒤 차량 세차 자동차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눈길 주행 뒤에는 꼭 차량하부 세차를 잊지 마세요. 눈길주행으로 인한 염화칼슘을 제거하기 위해 차량하부를 깨끗이 세차하고 브레이크 라인도 부식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염화칼슘으로 인해 차량골격을 유지하는 프레임(뼈대)에 부식이 생기면 내구성이 떨어져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이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겨울철 세차 시에는 물이 얼어붙을 수 있으니 오후 1시~3시 사이에 따뜻한 시간대가 좋습니다.

### 2) 겨울에는 배터리가 방전되기 쉽습니다.

배터리 충전 경고등이 켜지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점검 받아야 합니다.

겨울에 유독 배터리가 자주 방전 되는 것은 추운 날씨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고 히터 등 각종 전열기능 사용이 늘면서 전력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배터리 충전장치가 고장 났을 때는 충전 경고등이 점등됩니다.

충전 경고등은 단순 충전장치 고장뿐 아니라 엔진의 팬벨트가 끊어졌을 때도 점등됩니다.

경고등이 들어오면 꼭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가급적이면 따뜻한 장소에 주차하거나 배터리에 커버를 감싸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3)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확인 하세요.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것이 바로 냉각수입니다.

겨울철에는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 할 점은 첫째, 반드시 기존에 들어있던 부동액의 색과 같은 것으로 넣어야 합니다.

둘째, 부동액의 색이 탁하거나 오염 되었다면 교체해야 합니다.

부동액 보충은 간단하므로 보닛을 열고 냉각수 리저브 탱크 표시 선 까지 넣으면 됩니다.

물과 부동액 비율은 5:5 가 좋습니다.

### 4) 타이어는 주행 성능 뿐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 됩니다.

겨울철 타이어 공기압점검은 필수입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타이어 속 공기가 수축하면서 공기압이 낮아지는데 이는 주행성능 뿐만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공기압은 평지에 주차 한 뒤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자동차에 장착된 TPMS(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공기압이 낮아지는 현상 때문에 10%정도 더 주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계절 타이어는 빙판길에 취약합니다. 겨울용 타이어는 추운 날씨에도 뽀뽀하게 굳지 않는 컴파운드로 만들어진 덕에 미끄러지지 않고 빙판길에서의 접지력이 뛰어납니다.

겨울철에는 겨울용 타이어가 안전하고 좋습니다.

- 문경공파 증회 眞空 京洙 -





문촌선생 명시선 40

元日帖字

원 일 첩 자

今年元日有餘歡笑對妻兌是故山閉戶非嗔  
금년 원일유여 환소대 처태시고 산 폐호비진

車馬客見人羞愧鬢毛斑  
거마객견인수괴빈모반

설날에 지은 첩자시

올해의 설날은 즐거움이 넘쳤나니  
처지(처지)와 웃음으로 마주보는 고향이었으니까.  
문을 닫아 붙인 것은 거마객(거마객)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허영게 썬 귀밑털이 부끄러워서였네.

廣李 건강코너



이주일(李柱日)원장  
- 한의학 박사 -

수화상제(水火相濟) [24]

- 심신상교(心腎相交) -

예로부터 동양(東洋)에서 '대자연(大自然)은 서로 다른 상대적(相對的) 속성(屬性)이 조화(調和)를 이루며 존재(存在)하는데, 우주(宇宙)의 존재법도(存在法道) 즉 천도(天道) 내(內)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만물현상(萬物現象)의 본질(本質)을 찾고자하는 동양학(東洋學)의 목표(目標)는 '天'을 인식의 기준으로 삼은 태극(太極), 도(道), 무(無)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의학(韓醫學)에서도 '인체의 생명현상 전체의 흐름을 인식하는 주체로 장부(臟腑)의 기능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東洋學의 전일적(全一的, 하나의 전체로서 완전히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 계통론(系統論)을 한의학(韓醫學)에 적용(適用)한 것입니다.

韓醫學의 장부론(臟腑論)은 간(肝)·심(心)·비(脾)·폐(肺)·신(腎)의 오장(五臟)을 주체(主體)로 하여 육부(六腑), 오체(五體), 오관(五官),

오화(五華), 사지백해(四肢百骸) 등 온 몸의 조직(組織) 기관(器官)을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써 유기적(有機的)인 정체(整體)가 형성되는 것으로 인신(人身)을 설명합니다. 이는 개별적(個別的)으로 고립(孤立)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오행(五行, 木·火·土·金·水)의 생극제화(生剋制化) 규율(規律)에 따라 조절(調節)·통제(統制)됨으로써' 상대적(相對的)으로 안정(安定)된 상태(狀態)가 유지(維持)됩니다.

五行(木·火·土·金·水)을 태허(太虛)·태극(太極)에 가깝게 즉, 더 근본적(根本的)으로 보면 음양(陰陽)으로 나타납니다. '陰'은五行의 수로 대표(代表)되고, '陽'은五行 중 火로 볼 수 있습니다. 人身의 五臟 중 '水'를 대표하는 장기(臟器)는 체간(體幹, trunk)의 하부(下部)에 위치한 '신(腎)'이고, '火'를 주(主)하는 장기(臟器)는 우리 몸 흉중(胸中)에 있는 '심(心)'입니다.

염상(炎上)·성장(成長)·무성(茂盛)한 화기(火氣)의 성(性)을 지닌 胸中의 '심기(心氣)'는 응고(凝固)·견고(堅固)·냉철(冷澈)한 수기(水氣)의 성(性)을 띠는 體幹 下部의 '신기(腎氣)'와 조화(調和)를 이루어 그 기능이 비로소 생리적(生理的)으로 발현됩니다. 이는 腎氣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韓醫學에서는 이를 '수화상제(水火相濟)'라고 하며, 臟腑論的으로 '심신상교(心腎相交)'라고 합니다. 따라서 心氣와 腎氣가 調和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몸에 바로 병리(病理) 현상(現象)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건강(健康)한 우리 몸은 陰陽調和를 이루고 있는데, 허로(虛勞) 내지는 병정(病程)이 일구(日久)한 경우 人身의 음기(陰氣)가 소진(消盡)되어 不足하면 해당 陰氣와 균형(均衡)을 이루던 양기(陽氣)가 부월(浮越)하여 열상(熱象)이 나타납니다. 이를 韓醫學에서는 '허열(虛熱)'이라고 합니다. 虛熱은 감염성(感染性), 급성(急性) 熱症에 해당하는 '실열(實熱)'과는 대비(對比)되는 것으로 서양의학(西洋醫學, medicine)의 발열(發熱) 이론(理論)에는 다분히 간과(看過)된 면이 있습니다. 이는 人身을 여러 기능(機能)이 調和된 整體로 인식(認識)한 東洋의 생명관(生命觀)에서 비롯된 韓醫學의 특장(特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虛熱에 대한 治療는 실제 임상(臨床)에서도 '굉장히 유효(有效)'합니다.

쉬운 예로 폐결핵(肺結核)을 오래 앓은 사람이 얼굴의 광대뼈(顴骨, zygomatic bone) 부위에 선홍색(鮮紅色) 熱象을 띠면서 식은땀(도한, 盜汗)이 날 정도로 몸이 후텁지근하다면 이는 일차적(一次的)으로 虛熱로 보아야 합니다. 단, 구강체온(口腔體溫) 37.8℃ 체온(體溫) 41℃ 이상의 고열(高熱)의 경우는 虛熱과는 전혀 다른 경우이니 의사·한의사의 감별진단(鑑別診斷)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의 : 李家삼대한의원 (031) 742-1075

이달의 明心寶鑑

司馬溫公曰	사마온공왈
積金以遺子孫	적금이유자손
未必子孫能盡守	미필자손능진수
積書以遺子孫	적서이유자손
未必子孫能盡讀	미필자손능진독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	불여적음덕어명명지중
以爲子孫之計也	이위자손지계야

[해설]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금을 쌓아서 자손에게 물려줄 지라도  
반드시 자손이 능히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책을 쌓아서 자손에게 물려줄 지라도  
반드시 자손이 능히 다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모르는 덕을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쌓아  
자손을 위한 계획으로 삼느니만 못하다.

- 계선편(繼善篇) 중에서 -



# 산악회 인왕산 둘레길 탐방



재경화수회 산악회(회장 재석)는 1월28일(일요일) 지하철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에서 24명의 회원들이 모여 영하(-8℃)의 추운 날씨 속에 “인왕산둘레길” 산행에 나섰다.

10시반경 모임장소를 출발한 회원들은 당초 안산 둘레길을 탐방할 계획이었으나, 빙판길로 인한 안전을 고려하여 코스를 인왕산으로 정하고 등반대장의 안내에 따라 먼저 인근에 위치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관람한 후 무악재 하늘다리를 건너 산행 길에 올랐다.

인왕산(仁王山)은 서대문구의 홍제동과 종로구

의 무악동, 누상동, 옥인동, 부암동에 걸쳐있는 높이가 338.2미터의 산으로 통일로를 사이에 두고 안산(해발 295.9m)과 마주하고 있으며, 특이한 형태의 암석과 암벽의 웅대함이 등산객의 감탄을 자아내며 정상에 서면 서울 중심가의 빌딩들과 청와대 부근의 녹지가 한 눈에 내려다보여 서울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산이기도 하다.

일행은 잘 꾸며진 등산로를 따라 인왕산의 기괴한 해골바위와 선바위를 지나 삼삼오오 짝을 이루며 대화를 나누는 등 겨울의 숲길을 만끽하였다. 1시간여를 걸어 넓은 쉼터에 자리하고 단체사진을 찍은 후 인왕사 방향으로 하산하였다.

일행은 독립문을 거쳐 영천시장의 한 순대국집에 자리하고 금년도 정기총회를 시작하였다. 재석회장의 인사에 이어 성수 총무의 경과보고와 석연 감사의 감사결과보고가 있었으며, 2017년도 결산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통과되었다. 이어서 식사와 건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돈독의 시간을 가진 후 이날의 행사를 모두 마쳤다.

- 산악회 총무 성수 기 -

## 이달의 행사 계획

### 1. 재경화수회 2월 정기모임

- 일시 : 2018년 2월19일(월) 오후6시
- 장소 : 대중회 지하회의실

### 2. 산악회 행사

- 일시 : 2018년 2월25일(일) 오전10시
- 장소 : “북한산”둘레길
- 모임장소 : 우이역 2번 출구  
※ 신설동~우이역간 신설경전철

### 3. 정암 이종훈선생 서세87주기추모행사

- 일시 : 2018년 3월 1일 오전10시30분
- 장소 :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

### 4. 칠곡애국동산 추모행사

- 일시 : 2018년 3월 1일 오전10시
- 장소 : 칠곡 “애국동산”

##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금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b>1월 구독 및 찬조</b>			이명익	20,000	서울시 강동구	이수강	100,000	경기도 성남시
이찬식	20,000	전라남도 보성군	이훈익	20,000	경기도 수원시	이복재	20,000	경기도 여주시
이성민	20,000	서울시 서대문구	이종현	20,000	경기도 광주시	이효영	50,000	서울시 광진구
이충교	20,000	서울시 동대문구	이수성	40,000	울산광역시 동구	이원환	50,000	경상북도 예천군
이근형	20,000	경기도 하남시	이성웅	20,000	경기도 평택시	이연수	30,000	경상남도 창원군
이태수	20,000	경기도 수원시	이대수	20,000	경기도 수원시	이종민	30,000	경기도 안양시
이숙재	20,000	광주광역시 남구	이윤환	20,000	대구광역시 중구	이종근	20,000	경상남도 김해시
이용춘	20,000	전라남도 무안군	이창선	20,000	전라남도 여수시	이충환	20,000	대구광역시 북구
이건재	20,000	경기도 양평군	이종근	20,000	경기도 용인시	이종철	20,000	경기도 성남시
이주명	20,000	인천광역시 서구	이명재	20,000	경기도 용인시	이종엽	2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용철	20,000	광주광역시 서구	이종익	20,000	경상북도 상주시	이윤진	20,000	경기도 성남시
이택성	2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상재	20,000	경기도 하남시	이출래	30,000	전라남도 보성군
이용휘	20,000	서울시 강동구	이종일	20,000	경기도 화성시	이종건	20,000	인천광역시 남구
이영택	20,000	경상북도 포항시	이정실	20,000	서울시 종로구	이용식	20,000	서울시 강남구

###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원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원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20,000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59691-01-110

농협은행 : 301-0218-9163-91 광주이씨 대중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회보를 받아 보실 주소 및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 보내주시거나

☎ 02)735-1720 으로 연락하십시오.

광주이씨대중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18年 2月 1日

<제332호>

##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玉載

編輯人 : 李錫演

主幹 : 李碩載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